

### 한미 항공전력 대규모 전개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

한미 공군이 연합작전 및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4월17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연합항공전력 110여 대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한 '2023년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전력은 F-35A·F-15K·KF-16 전투기,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참가했으며, 미측 전력으로는 미 공군의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 등과 미 해병대의 F-35B, FA-18 전투기 등 40여 대가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4·5세대 연합전력 간의 상호운용성과 통합임무 운용능력을 향상하



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 블랙이글스, 말레이시아 LIMA 에어쇼 참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주요 방산협력국으로 떠오른 말레이시아 창공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블랙이글스는 5월 2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국제해양·항공 방산전시회 에어쇼(LIMA 에어쇼)' 개막식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냈다.

개막식 에어쇼를 마친 블랙이글스는 초청국인 말레이시아 공군과 우정비행을 하며 군사외교 활동도 펼쳤다.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 8대는 말



레이시아 공군 F/A-18 등 항공기 7대와 함께 20여 분 동안 공항 상공을 나란히 비행하며 굳건한 우의를 과시했다.//

### 15비, 대량 항공기 긴급출격훈련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6월 19일 전술공수기 등 수송기 13대를 동원해 지상할주 훈련을 펼쳤다.

훈련은 '6·25 호국안보주간'을 맞아 북한의 도발 등 고조되는 위협에 맞서 언제라도 출격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훈련을 맡은 15비는 일반 병력·화물 수송부터 특수부대와와의 합동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훈련에는 15비 CN-235, HS-748, C-130 등 수송기 13대가 투입됐다.//

### 5비 258공수비행대대, 40년 무사고 비행



CN-235 항공기로 해외공수·탐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258공수비행대대가 5월 19일 40년 무사고 비행 '금자탑'을 세웠다. 258대대의 무사고 비행시간은 무려 10만15시간이다.

1994년 7월부터 CN-235를 운용 중인 258대대는 작전지역에 필요한 병력·장비·물자를 투하하거나 수송하는 공수·공정 작

전을 맡고 있다. 또 야간 지상작전이나 해상 인명 구조 시 조명탄 투하 지원과 육·해·공군 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 정확도를 점검하는 비행 점검 임무도 수행한다.

대대는 "지난 40년간 대간첩작전, 야간 조명탄 투하 지원, 선박 구조 공중통제, 해외 연합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 23-4차 '하늘사랑 아카데미'

공군은 6월 26일 윤은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을 공군본부로 초청해 '23-4차 하늘사랑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나라는 군이 지키고, 군은 국민이 지킨다'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윤 위원장은 예비역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 김두만 장군, 고 백석연 장군, 고 딘 헤스 대령 등 호국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지금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희생한 많은 선배 전우 덕분"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은 이분들에 대한 존중이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 학사장교 70기로 임관해 중위로 예편한 윤 위원장은 여러 공군 부대에서 강연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억 원을 쾌척하는 등 공군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 한미 공군 정기음악회



공군은 6월1일 서울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 공군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국민과 자유의 소중함, 안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군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소중

한 일상을 지키는 공군의 의지·힘·기상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군악대와 협연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미 공군 군악대는 6월 5일에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 준사관 211명 임관식

공군교육사령부는 6월 30일 부대 최용덕관에서 유재문(소장) 사령관 주관으로 '제112기 준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한 211명의 신입 준사관들은 6월 12일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에 입단해 3주간 △준사관의 역할과 자세 △국방·공군 정책 이해 △실전적 리더십 △부대 관리 교육 등을 이수했다. 특히 MZ세대 특성과 팀워크 증진을 위한 조직심리 교육으로 장교와 부사관,



간부와 병사를 잇는 핵심 계층으로서 자질을 함양했다.//

###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6일(현지시간)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

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핵 위기 상황 대비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발전시키고,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국에 기항하는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한다는 내용도 수록됐다.//

###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윤 대통령은 6월 15일 건군 75주년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경기도 포천 과학화훈련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현장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국가급 연합·합동 화력격멸 훈련에는 우리 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9 자주포, 미군 F-16 전투기와 그레이 이글(MQ-1C) 무인공격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가 투입됐다.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는 국민참관단 300명, 국회의원, 한미 군 주요 직위자,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 국가보훈부 출범

국가보훈부(보훈부)가 6월 5일 공식 출범했다. 1961년 전쟁 희생자 구호 업무를 위한 '군사원호청'으로 문을 연 지 62년 만의 일이다.

보훈부는 이날 "박민식 장관 취임식과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를 담아 현판식을 열고, 승격 후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 총리, 이종찬 광복회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등 국가보훈 관계자와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보훈부 출범 원



년을 맞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훈이 국가의 정신적 근간이자 문화로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월 7일과 8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셔틀 외교의 본격적인 부활을 알렸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에 공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일 정상은 기시다 총리의 1박2일 방한 일정 동안 공식환영식과 소인수회담, 확대 회담, 공동기자회견, 한남동 관저 만찬 등 많은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 68회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그 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



고 있다"면서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제2 차군 수준 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사안보 전문가 4명과 김



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4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향후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로 향해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날아올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월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며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이륙해 123초 후 고도 약 66km에서 1단이 분리됐



고, 230초 후 고도 209km에서 페어링 분리, 267초 후 고도 263km에서 2단 분리, 고도 약 550km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 위성 분리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 KF-21 보라매 시제 6호기도 최초 비행 성공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6호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6월28일 “시제 6호기가 이날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약 33분 동안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며 “이로써 KF-21 시제기 6대 모두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비행이 성공하면서 시제 6호기는 앞으로 단좌형 항공기와의 형상 차이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존 시제기들과 마찬가지로 조종 안정성, 비행영역 확장,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전자장비 성능 검증, 무장시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초음속 비행, 첨단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공대공 무장 능력 검증 등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할 예정이다.//

### 시로 되살린 고 박인철 소령 “엄마 보고 싶었어요”

16년 전 야간비행 훈련 중 KF-16 전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故) 박인철 소령이 디지털 휴먼(가상인간)으로 돌아와 어머니 이준신 보훈휴양원장에게 남긴 말이다.

고 박 소령은 1984년 3월 팀스피릿 훈련 중 순직한 아버지 고 박명렬 소령의 뒤를 이어 공군 조종사의 길을 걷다가 2007년 7월 순직했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인간으로 복원된 고 박 소령의 모습은 7월 5일 국방홍보원 국방TV ‘그날 군대 이야기 고 박인철 소령을 만나다’편에서 공개됐다.

국방부에서 AI를 활용해 순직 장병을 복



원한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니터 속에는 가상인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과 표정, 입 모양까지 생전 모습과 똑같은 20대 청년 박인철이 환하게 웃고 있다. 고 박 소령의 가상인간은 이 원장과 10여 분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 한·말레이, FA-50 18대 수출 최종계약 체결

말레이시아 ‘국제해양·항공전시회 LIMA’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5월 23일(현지시간) 모하맛 하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FA-50 전투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양국 국방·방산협력의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FA-50 수출을 포함한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앞서 경전투기 및 전술입문훈련기 1



차 도입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을 선정하고 지난 2월 18대(약 9억2000만 달러) 규모의 본계약에 서명했다. 또 이날 최종계약식을 진행했으며, 이 장관은 FA-50 최종계약식에 임석했다.//

### 폴란드 수출형 FA-50 첫 출고

폴란드 수출형 전투기 FA-50GF 1호기가 출고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6월 7일 경남 사천시 본사에서 폴란드에 수출 예정인 FA-50GF 전투기 최초 출고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는 폴란드 노후 전투기의 신속한 교체와 신형 전투기 조기 전력화를 위해 전력 공백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로 ‘FA-50 GF(Gap Filler)’로 명명됐다. 7월까지 비행시험을 거쳐 8월 첫 납품을 시작해 연말까지 총 12대가 우선 납



품된다. 한편 KAI는 폴란드 계약 대수 48대 중 36대는 폴란드 공군 요구를 반영해 현존 최고 사양의 FA-50 성능개량 버전인 FA-50 PL(Poland) 형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납품한다.//

###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민간 위탁병원 이용 가능해진다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등은 앞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집 근처에 있는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7월3일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

는 75세 이상만 진료 가능했다. 특히 전국 617곳에서 운영 중인 위탁병원과 달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 8000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진료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히 치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2023년 화랑훈련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23년 화랑훈련’이 4월10일 대구·경북 권역에서 시작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올해 화랑훈련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대구·경북 권역 훈련을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대전·충남·세종, 인천·경기, 경남, 서울, 광주·전남 등 6개 권역에서 전개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전·평시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도를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격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련에서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민방공 경보전파 및 대피훈련’ △주체 불분명 테러에 대한 대테러 종합훈련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 등이다.//

### 한미, 실전적 육·해·공 연합지속지원훈련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는 6월1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연합지속지원훈련(CDEX·Combined Distribution Exercise)을 실시했다.

CDEX는 해외에서 한반도로 또는 한반도 내에서 각급 전투부대로 인원·장비·물자·유류 등 군수물자를 원활히 분배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유사시 작전지속지원 능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훈련은 지난 2017년부터 한미 전력을 포함해 각 군이 참여하는 연합·합동훈련으로



펼쳐지고 있다. 훈련에는 한미 연합·합동 전력이 대거 참여했다. 전차, 항공기, 함정, 민간 임차 화물선 등의 장비도 투입됐다.//

### 104주년 임정수립 기념식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4월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독립공원 어울림터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해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미래 세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제인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원년인 1919년 10월 31일 작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 문구에서 인용했다. 독립한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뿌리



와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공연(Ⅰ) 대한민국 임시헌장, 기념사, 기념공연(Ⅱ) 선열께서 원했던 나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 딘 헤스 대령 추모행사 참가기

최성열 (예 준장, 공사15기, 공군역사기록단 자문위원)



지난 5월11일 딘 엘머 헤스(Dean Elmer Hess) 미 공군 대령의 8주기 추모행사가 제주항공 우주박물관에서 열렸다. 나는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자문위원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헤스 대령은 6·25 전쟁 초기 빈주먹이나 다름없던 한국 공군이 F-51 무스탕 전투기로 비로소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무스탕 전투기로 일본 현지에서 우리 조종사들을 훈련했고 전쟁터인 한국으로 함께 와 참전했다. 미국 영화 '전송가(Battle Hymn)'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1000여 명의 전쟁고아들을 제주도로 후송시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주인공이다. 아마 그런 연유로 그의 업적을 추모하는 기념비와 기념행사가 제주도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행사 당일 제주도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울공항으로 향했다. C-130 수송기에 탑승한 지 30여 분이 지났을까? 오랜만에 탑승한 군용기에서 군 생활의 추억에 빠지려는 찰나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제주항공우주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 밖에는 눈에 익은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 우리 공군으로부터 임대받은 퇴역 군용기들이 전시돼 있었다. 실내에는 헤스 대령이 "By faith I fly (신념의 조인)"라고 기체에 새기고 비행했던 무스탕을 비롯한 공군 초창기 경비행기들이 전시

돼 있었다.

추모행사는 헌화, 기념사, 의장대 조총발사 등 일반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추모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행사의 틀을 깨고, 추모식 말미에 한미 전투기편대의 우정비행과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이 펼쳐졌다. 백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를 수직꼬리날개에 새기고 미 공군의 F-16 전투기와 나란히 날고 있는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였다.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흑백사진 속 주역이었던 나는 어느새 컬러사진 속 참관자가 됐지만, 우리 공군은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했다. 헤스 대령이 미군의 무스탕으로 가르친 우리 공군은 이제는 우리가 만든 훈련기로 우리 공군의 정예 조종사들이 훈련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으로 미국 시장의 문도 두드리고 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한미동맹은 상호 호혜적 관계로 진일보하고 있다. 덕분에 추모식에 참석했던 헤스 대령의 세 아들에게 당신들 아버지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한미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전달할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수송기 안에서 제주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주 하늘을 비행하는 미군 F-35A와 한국 KF-21 우정 비행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3.5.18.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 선언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권에서 제외되자 6·25전쟁을 최종 결심한 것이다. 이처럼 6·25전쟁은 미·소 냉전체제 구조 결함의 희생물이고, 좌우파 정치세력의 대결과 소·중·북의 정책 결정 체제 결함,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의 전쟁광적인 성격 결함으로 야기된 것이다.

우리는 북핵 위협으로 6·25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진핑의 대

만 점령 야욕으로 신냉전 체제화가 제2의 6·25로 비화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단합해야 할 때다. 국제체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진핑·김정은·블라디미르 푸틴의 일거일동, 특히 3선 연임된 시진핑의 주동작위(主動作爲·제 할 일은 주동적으로 함)를 경계하면서 한·미 정상 위상선언에 더해 종북좌파 척결과 자주 국방력 증강으로 국가 안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한 생존과 번영의 길이다.//

## 대한민국, 영웅들의 피물은 군복위에 있다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우리가 용서는 하지 못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6·25한국전쟁이다. 올해는 6·25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휴전 상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6·25전쟁하면 떠오르는 게 있다. '군세어라 금순야'와 '비목'이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 흥남부두 철수 등 모두 가슴 저리는 아픔의 추억꺼리다. 6·25전쟁 역시 자칫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사라질 뻔한 위기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3대 상륙작전이라 일컬어지며 불리해졌던 전세를 한 번에 뒤엎은 드라마 같은 사건이었다.

작전명 'Operation Chromite.' 이것은 6·25전쟁 당시 수세에 몰려있던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켰던 가장 대표적이고도 위대한 사건이다. 성공률 1/5000, 온갖 악재를 뚫고 이뤄낸 이날의 승리는 세계전사에 있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세계 2대 상륙작전으로 꼽힐 만큼 우리 역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4대 '해신(海神)'으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은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무너진 조선의 수군을 이끌고 출전한 명량대첩에서 왜군을 상대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승을 거둔다. 13척 VS 133척, 그 어떤 전례도 없고,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날의 승리는 지금도 세계 전쟁사 사가(史家)들로 부터 손꼽히는 전투 중 하나다. 이순신 장군과 맥아더 장군이 인류사가 꼽는 위대한 장군인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전적(戰績) 때문만은 아니다. 결코 이기지 못할 전투, 결코 성공치 못할 작전을 성공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모든 참모가 말렸고, 심지어 수많은 이탈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두 장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일본에 속국으로 남았을 것이고, 맥아더가 없었다면 한반도는 공산국가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을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대부분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맥아더 장군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승리를 역사에 기록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시 이름 모를 학도병들과 계급 없는 캐러 부대와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국군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양동

작전으로 위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던 우리 국군,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전선(戰線)에 투입된 민간인과 학도병. 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 낸 군번 없는 영웅들이다.

그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웅 이순신의 명량대첩. 영웅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에 이어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테르모피레 전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투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과 같이 한 사람이 길목을 지켜 천 명을 막아낸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다. 스파르타 군대의 용맹은 실로 대단했다. 단300명의 군사로 30만 대군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좁은 골짜기를 사수하는 그들의 모습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다. 그러나 명량대첩이 대승을 거둔 것과는 달리 테르모피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군대는 완패했다 그 이유는 바로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군에게 승리를 안겨준 자는 뜻밖에도 대장에게 야단을 맞은 스파르타 병사가 훗날에 페르시아 군에 스파르타군의 약점과 골짜기의 우회로를 알려주면서 스파르타군은 전멸되고 만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반인류적 악의 세력에 의해 국제적 안보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는 글로벌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은 오히려 스파르타의 병사 같은 '내부의 반역자'(?)때문에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참으로 위험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6·25전쟁 전범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중국 뭉에 동참하고 싶다는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 집권 후 5년 간 거짓 평화에 몰두하는 사이 군(軍)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안보의식이 통째로 흔들렸다. 평화이상주의에 취한 나머지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됐고, 북한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역량도 떨어졌다. 더구나 과거 정부에서 GP를 없애고, 철책과 지뢰밭을 제거하고, 판문점 도로를 넓히고, 탱크방어벽을 허물었으니 얼마나 잘 들어오겠는가. 지금은 이름조차 잃어버린 월남,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며 국민의 결집된 '항전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항전의지는 적(敵)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공고해진다. 첨단무기보다 장병들의 정신교육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는 정치적 협상력의 근간이다. 북한은 동구권이 붕괴되고 아시아 공산국들도 개방과 개혁이 대세임에도 이를 거부한 예외지대였다. '절대 빈곤'과 '집단지사'에도 핵개발에 집중하였고 오늘날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

## 자유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길

최명상 (예 준장, 공사 16기, 前 공군대학 총장,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중국 신화사는 '미국의 협박 외교와 위해(危害)' 보도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도발한 대형 전쟁을 열거하며 6·25전쟁을 첫째로 꼽았다. 소련 붕괴 뒤 공개된 사료로, 6·25전쟁은 스탈린이 결정한 김일성의 남침 전쟁으로 공인된 지금도 역시 주장을 계속했다. 시진핑(習近平)의 잘못된 역사 인식 '항미원조(抗美援朝)' 탓이지만, 학계 책임도 있다.

2차대전 뒤의 미·소 냉전 원인을 소련 공산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전통주의 학파와 미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수정주의 학파의 상반된 논리를 6·25전쟁에 그대로 적용한 탓이다. 전통주의 학자들은 6·25전쟁을 스탈린 주도 남침설,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공모설, 김일성 주도 남침설로 주장했다. 반면 좌파 성향의 학자들은 맥아더와 이승만의 공모 북침설, 남한의 남침유도설, 미국 개입 내전설을 펴는가 하면 통일전쟁설, 소련 불개입설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왔던 브루스 커밍스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활동

을 중시하며, 6·25전쟁을 1946년 10월 대구폭동과 1948년 제주 4·3사건 및 10월 여순반란 연장선상의 해방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커밍스 키즈'가 출현했고, 종북좌파는 미군을 점령군,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호도한다. 그러면 6·25전쟁의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며 스탈린은 왜 결심했는가?

1946년 3월 스탈린이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공산화하려 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으로 공산 세력 확장을 봉쇄했다. 스탈린이 1943년 해제한 코민테른을 코민포름으로 부활시켜 냉전이 본격화했다. 1947년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생을 위해 마셜플랜을 시행하자 소련은 코메콘으로 대항했다. 미·영·프가 독일 점령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도이치 마르크(DM)로 통화를 통합하자, 스탈린은 1948년 베를린 봉쇄를 단행해 미·소 냉전은 극에 달했다. 서방측의 대량 공수작전으로 제3차 세계대전은 피했으나,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소련과 공산권을 포위했다. 스탈린은 압박을 받았고 공산 종주국 지도자로서의 권위마저 실추됐다.

사면초가인 스탈린이 압력 분산책을 모색하던 중 1949년 8월 소련 핵실험 성공, 10월 마오쩌둥의 중국 대륙 석권에 이어